

90년대를 향해 뛰는 젊은 시인들

첫시집 대거 출간... 일부선 '문학상업주의'라는 비판도

등단한 지 5년 내외의 젊은 시인들의 작품집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막장이냐, 최전선이나"라는 한 시인의 울부짖음으로 대변되었던 80년대를, '詩'가 쏘아올린 조명탄으로 겨울나기의 통로를 찾았던 동시대인들로서는 젊은 시인들의 집단적 출현이라는 발빠른 세대교체 조짐에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김정환, 박노해, 김용택 등에 의해 이끌어져 왔던 80년대 시정신에 대한 전체적 조망은 아직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가능자로 그들의 변별성을 찾아내더라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공통된 집단증후군이 있다. '광주'가 바로 그것. 한 시대를 온통 가위눌림의 악몽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비극은 우리문학에 또다른 '풍경'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막이었다. 따라서 세세대의 문단진출은 앞세대가 전술했던 그 장막의 두터움이 한꺼풀 벗겨질 때 펼쳐질 색다른 풍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심에 답해야할 부채를 스스로 안고 있다.

붓물터진 시집출간

올 한해동안 지명도가 높은 출판사를 통해 처녀시집을 간행한 시인은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장경린의 「누가 두꺼비 집을 내려놨나」, 주창운의 「물위를 걷는 자 물밑을 걷는 자」, 송찬호의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민음사에서, 이창기의 「꿈에도 별은 찬바람처럼」,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다. 윤형근의 「사냥꾼의 노래」, 강남옥의 「살과 피」는 열음사에서, 정영상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김경미의 「쓰다만 편지들 다시 못쓰라」는 실천문학사에서 간행되었다.

중앙일보사는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한 신진 시인들의 작품집을 일시에 간행하였는데, 유하의 「무림일기」, 백상열의 「강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신연주의 「치르치르 미치르」, 김형경의 「모든 절망은 다르다」, 조운호의 「첫번째 나무」가 각 시인의 첫시집. 그밖에 인병선의 「들풀이 되어라」(풀빛), 강계윤의 「오래 기억 나지 않는 겨울을 위하여」(문학과비평사), 서홍관의 「어여쁜 꽃씨하나」(창작과비평사), 강형철의 「해망동 일기」(황토), 차정미의 「눈물의 웃고름 깃발삼아」(동광) 등이 상재되었다.

올 한해동안 지명도가 높은 출판사를 통해 처녀시집을 간행한 시인은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量産된 신진시인들이 부과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문학사라는 냉정한 書記는 올해를, 한 시대를 폐기처분하는데 쓰여진 기간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일단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신진시인들은 — 서홍관, 조운호를 제외하고 — 60년대 産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부 논자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점이 60년대 세대가 갖는 또다른 '문학적 불망기'라 할 수 있다. 곧 기존 시인들의 노화된 문학세계에 '깡판'을 놓을 새로운 힘이 있다는 진단. 그것은 60년대산들이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딱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그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하, 기형도, 송찬호는 평단의 주목을 끌면서 90년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적 정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시대의 기존 가치관을 '정통종합검법'으로 가져왔던 유하에 대해 김현은 "그는 무협소설적 언어 속에서 그 언어를 반성한다. 그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림이 곧 삶의 세계라는 간단한 인식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그것은 무림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계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다. 그 원칙을 인식하자마자 무협소설적 언어는 풍유적 언어로 탈바꿈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며 절망적 시세계를 보여주다 안타깝게 요절한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에 대해 박철화는 "유년의 님과 꿈으로서의 책임기의 세계가 그의 출발점이었다면 그것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바스르르된 폭압적 현실의 세계는 그가 머무른 마지막 기착점이었다. 비극은, 그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 그것 뿐이다"라고 그의 시세계를 정리했다.

모순언어를 통해 산업화의 한 표현인 도시화가 곧 지옥이라고 보는 송찬호에 대해 정한용은 "현실상황에 직설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언어로 영역을 국한시킨 것은 시인의 시선의



송찬호



유하



이창기

폭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언어에 의해 모든 존재가 일차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시인의 관심이 현상보다는 그 내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송찬호의 시세계의 요체는 고통에 대한 인식과 그 해소방식의 제시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문학상업주의라는 함정

'젊은 시인' 시리즈를 기획한 열음사의 최형철 편집장은 이같은 신진 시인들의 시집출간에 대해 "올바른 경로를 통해 등단한 이후에도 시집을 간행하지 못해 문단에서 제 몫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젊은 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기존 시인들이 출판사의 시집출간 경쟁에 휘말려 창작에너지가 재충전하기도 전에 무리하게 시집을 간행, 노화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신진 시인들의 시집출간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여유있는 창작시간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특히 시집의 경우 제작단가가 다른 출판물에 비해 적게 들어 출판사로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아, 이런 현상이 가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집출간은 초판이 소화되면 투자액은 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학 출판물이 그동안 시장을 폭넓게 개척한 결과 의외의 상업적 효과도 노리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신진시인들의 시집출간태는 지금보다 더욱 대담해져 등단절차를 무시하고 소설의 경우처럼 全作출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시집 조기출간에 대해 문학평론가 권성우씨는 사뭇 부정적이다.

'문학의 시대'를 맞아 등단절차의 보수성이 비판되고, 그 기회가 폭넓어진 결과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예술에 대한 시인의 장인정신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것. 오랜 기간에 걸쳐 발효된 자신의 작품중 에센스만을 추려내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대신 시집발간을 위해 습작품까지 끼어 파는(?) 악습은 편집자나 시인 스스로에 의해 경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편성될 대립적 문학관

80년대 시세계를 평가하기 할 때 민중성과 해체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성이란 경제적 토대의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한 '무기'로서 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정신을 일컫는다. 해체성이란 낡은 정서와 관념을 부수고, 다변화되고 중층적인 현실에 대해 탄력적인 언어적 대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문학관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90년대 시에 대한 전망은 대립적인 문학관이 민중성—도시성으로 해체 모일 것 같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시성이란(문학평론가 박덕규 씨에 의하면) "사회현실 속에서부터 일상적 현상을 포착하고, 그 현상을 방법적으로 전도시켜 이질적인 부조리 공간을 만들어 주의력을 환기시키는 구조 위에 후기산업사회의 자본구조에 의한 인간합몰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경향"을 말한다.

이론적 입장에서 80년대 그 이후가 어떻게 예측되던 90년대는 젊은 시인들이 자신들의 상상의 공간을 마음껏 지어올릴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그 구역에 지어진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결핍된 꿈의 세계가 결국 90년대 시의 지배적인 경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들 量産된 60년대산 시인들이 그 과제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느냐에 있다. 그들이 만약 그 값을 해내지 못할 때 문학사라는 냉정한 書記는 올해를, 한 시대를 폐기처분하는데 쓰여진 바겐세일 기간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권우 기자